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⑤:40 웰컴 투 시월드(재)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광장 3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인간극장	00 Kutomung 대한민국 1~2부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Kutomung A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란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40 강연 100℃ 특선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비례대표 후보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20 팩트 10	00 KBS광주총국 6·4지방선거 법정토론회 (광주 동구청장 후보)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30 버블말 고운말 35 강연 100℃ 특선(재)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빅맨)(재)	20 전남비례대표 비초청 대담 45 세계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00 SBS 생화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05 러브인 아시아(재)		2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12뉴스 30 전남도교육감 후보초청토론회
1 40 직언직설	00 KBS광주총국 6·4지방선거 법정토론회 (광주 남구청장 후보)		10 영광군수 비초청 연설 30 정성근수 비초청 연설 50 세계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
2 50 정몽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다큐멘터리 3일(재)	05 다큐+감성	00 SBS뉴스 10 넷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캐드난마	00 시사진단 55 든든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캐라투스 코리아 55 영화가 좋다(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매일엄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4 0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남도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강화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지구촌 뉴스(재)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남매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7 10 강연 100℃ 특선(재) 30 우리말 겨우리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할키운 딸 하나)
8 1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마의 정월)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20 6·4지방선거 후보 방송연설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30 글로벌 다큐멘터리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 A 스포츠 뉴스	2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빅맨)	00 월화특별기획 (드라이앵글)	00 월화드라마 (탁틴내일)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15 201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토론회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15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부부극장 공작(재)	45 문화 책잡기 ①:25 7타임 55 일일특목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다시 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①:50 특파원 현장보고	50 MBC 뉴스24 ①:10 스포츠 특선	50 나이트 라인 ①:10 SBS 골프

“뽕끼”는 나의 Soul 대중에게 통하다

백지영 싱클 ‘여전히 뜨겁게’ 발표



? 뽕끼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중 음악의 특성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트로트풍의 대중음악을 의미한다.

최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백지영(38)은 다이아트 중이라고 했다. 환절간 키에 변함없이 늘씬했지만 새 음반 활동을 앞두고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었다. 로해 6월 9일 연하의 배우 정성원과 결혼한 그는 지난 7일 싱글 ‘뽕끼’를 발표한 데 이어 26일 또 다른 싱글 ‘여전히 뜨겁게’를 잇달아 발표한다. 그는 “뽕끼”는 한국적인 Soul(Soul)이라며 “보통 알앤비(R & B), 솔 등 여러 장르로 구분하는데 ‘뽕끼’는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솔이다. 가수가 메시지 전달자라면 ‘뽕끼’ 있는 발라드는 대중의 감성에 다가가기 좋다. 나에게 이러한 감성이 생긴 게 무척 좋다”고 말했다. 어느새 발라드를 대표하는 디바가 됐지만 사실 그의 출발은 댄스 가수였다. 1999년 1집의 ‘선배’로 데뷔해 2000년 2집의 ‘대시’(Dash)가 크게 히트하면서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올해가 15주년이 되는 해다. “1집을 냈을 때, 무척 잘 나가던 김현정 씨가 공백기여서 후속곡 ‘부담’까지 죽 이어갔는데 그때 이정현 씨가 나오는 통에 밝혔죠. 하하. 이후 2집이 당시 기준으로 40만 장 가까이 팔리면 서 반응을 얻었어요. 엄청화 인이 이후 여자 가수 중 음반이 가장 많이 팔린 거였죠.” 그는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단 생각도, 음악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서 고교 때 밴드부를 했고 자연스레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에 입학했다.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한 작곡가의 눈에 띄어 오디션을 봤고 1년 만에 첫 앨범이 나왔다. “노래 잘 부르는 게 재능이란 생각도 못했던 내가 가수로 사는 걸 보면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점에 있던 2000년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3집(2001), 4집(2003)은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3년의 공백기 끝에 2006년 발표한 5집의 ‘사랑 안해’가 빅히트를 하면서 다시 정상급 가수의 대열에 올랐다. 이 곡은 ‘대시’ 이후 6년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에 올랐고 그해 노래방 최고 애창곡으로 꼽혔다. “부모님에게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라는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해요. 가식 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난 좋았던 일도 축복인 것 같아요. 아팠고 힘들었지만 견뎌냈기에 축복이죠. 신동엽 오빠가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는 이어 “시간을 보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되면 나중에 다른 시련이 닥쳐도 견디지 못한다. 나에게서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는 망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솔한 히트곡 중에 그는 5집의 ‘사랑 안해’를 “지금도 마이크를 잡으면 가장 떨리는 노래”라며 첫 손에 꼽았다. “방송 활동이 어려웠던 4집 때 이효리의 ‘넌 미녀’이 나왔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너무 예쁘고 멋있었거든요. 이후 ‘사랑 안해’를 냈을 때도 처음 두 달간 지상과 방송 출연이 어려워 각 방송계이방 방송을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발라드로 컴백했다는 것만 알리고 다른 욕심은 없었기에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았어요. 처음에 고전했지만 다행히 두 달 만에 반응이 왔죠.” 소리를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 안으로 묻히는 창법을 쓰다 보니 ‘다른 보컬 가수들처럼 애드립, 화성을 연구해야 하나’란 고민도 했다. 자꾸 남의 보컬을 분석하게 돼 노래를 온전히 감상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이 고민을 해결해 준 사람이 이선희 언니”라며 “언니가 스트레스받지 말고 아예 노래를 듣지 말라고 했다. ‘이제 네가 부르는 사람에서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라고 나의 감성에만 집중하고 만족해야지 욕심내지 말라고 조언해줬다.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안도가 됐고 기대로 싶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마음에 안장감을 준 또 한 사람은 정석원이다. 스타일리스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인 만큼 ‘뽕살 커플’로 소문이 자자하다. 남편 자랑을 해달라고 하자 “내가 기가 세서 잡고 살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며 술술 풀어낸다.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결혼하고 나니 훨씬 좋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단점도 있지만 남편이 장난기가 많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늘 웃게 해주죠. 유산으로 무척 힘들었을 때도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절 우게 해줬어요. 스스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엄청 절약하는데 화려한 사람이 아니어서 좋아요. 하하.”

그는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단 생각도, 음악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서 고교 때 밴드부를 했고 자연스레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에 입학했다.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한 작곡가의 눈에 띄어 오디션을 봤고 1년 만에 첫 앨범이 나왔다. “노래 잘 부르는 게 재능이란 생각도 못했던 내가 가수로 사는 걸 보면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점에 있던 2000년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3집(2001), 4집(2003)은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3년의 공백기 끝에 2006년 발표한 5집의 ‘사랑 안해’가 빅히트를 하면서 다시 정상급 가수의 대열에 올랐다. 이 곡은 ‘대시’ 이후 6년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에 올랐고 그해 노래방 최고 애창곡으로 꼽혔다. “부모님에게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라는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해요. 가식 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용재, 세월호 희생자 이다운군 자작곡 부른다



수익금 단원고에 기부

포맨의 신용재(25)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 고(학) 이다운군의 생전 못다 한 꿈을 이뤄준다는 마음으로 세월호 희생자 이다운군 자작곡 부른다. 수익금 단원고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신용재는 가수가 꿈이던 이군이 기타를 치며 노래한 미완의 자작곡 음원을 유족 측으로부터 전해 받아 편곡과 보컬 녹음을 거쳐 완성해주시기로 했다. 유족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군의 꿈이 하늘에서라도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용재가 부른 음원을 이달 말 음반 유통사를 통해 출시할 계획이며 음원 수익금은 단원고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요 관계자는 “평소 이군이 신용재의 팬이었던 걸로 안다”며 “유족이 소속사를 통해 신용재가 아이의 마지막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독학으로 기타를 배운 이군은 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았고, 방송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이 없는 이 음원은 이군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2분 남짓의 1절만 있는 미완성 곡이다. 노래에는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었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중략)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란 가사가 담겼다. 앞서 이군의 유족은 유명 작곡가인 박근태에게도 이 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컬과 기타 한꺼번에 녹음돼 사운드가 좋지 않아 매번 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결국 박근태는 이군이 창작한 멜로디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곡으로 완성해 유족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엑소 “크리스 이탈 후 더 단단하게 뭉쳤다”

“비 내 뒤에 땅이 굳는다고 멤버들이 더욱 뚝뚝 뭉쳤어요.” (첸) “이상한 루머가 돌아 오해가 생기고 팬들 사이에 편도 갈려 속상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레이) 그룹 엑소가 25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번째 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로 스토트 플래닛’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크리스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멤버들은 지난 15일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팀에서 이탈한 데 대해 “당황스런 마음이 컸다”며 “콘서트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백현과 루한은 “사건 이후 처져 있지 않고 팀워크

를 다지며 멤버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다”며 “1주일 만에 모든 스태프가 무대 동선, 안무를 다시 짜고 노력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데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 공연은 시야제한석까지 팔리며 총 4만2000석이 순식간에 매진돼 화제가 됐다. 팬들이 티켓 구매를 위해 연습하는 등 예매 전쟁이 치열하자 당초 2회 공연에서 1회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티켓을 손에 넣지 못한 팬 3천여 명이 25일 취소표를 구매하기 위해 공연장에 길게 줄을 늘려서자 소속사는 이날 대형 스크린을 마련해 10곡까지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타오는 “엑소가 인기가 많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11명이 열심히 활동하겠다. 아시아 1등을 넘어 세계 1등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가족을 위한 식단)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거문록 아틀라스(재)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45 미연미이로봇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강대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용서)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오스트리아)(재)	15:15 포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00 덩둥덩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남도예술여행>
0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큐프라임
08:00 덩둥덩 유치원	13:10 출거운 수학 EBSMATH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2:45 달려주세요
08:20 두다다(재)	13:20 외계어글 친구들	16:45 키피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거문록 아틀라스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00 방귀대장 뽀뽀이	24:05 지식채널e(재)
08:50 꼬마와 친구들	13:45 지오와 친구들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헬로 코코콩	17:30 뽀롱뽀롱 보로로	24:10 EBS 인문학 특강
09:2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키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1:00 EBS 절학다큐멘터리
09:35 뽀뽀		18:00 생방송 토틀! 보나하니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암탐탐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09:10 " <수학 I>(재)	21:00 " <한국사>(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해법과 작문>특사와 문법 A형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 <국어 4-1>
07:30 나의 성공비결	16:20 " <국어 5-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6:40 " <국어 6-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1>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 1①>
09:10 TV 중학 <수학 I(상)>	18:40 " <수학 3>
09:50 " <수학 1(상)>	19:20 배움 플러스 <국어 1>
10:30 " <수학 2(상)>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수학 2(상)>
11:10 " <수학 2(상)>	20:00 중학개념 정리대기 <국어>
11:50 " <수학 1(상)>	20:40 " <영어>
12:30 등업스공 <수학 2(상)>	21:20 " <과학>
13:10 " <수학 2(상)>	22:00 " <수학>
13:50 " <과학 2(상)>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학 2(상)>(재)
14:30 " <수학 2(상)>(재)	23:20 중학+포스 영문법 1 <국어 3-1>
15:20 만점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다. 48년생 급류에 휩쓸리기 전에 빨리 상륙하라. 60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하리라. 84년생 신중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5, 72</p>	<p>午 42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54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다. 66년생 결과가 의외처럼 좋은 하루다. 78년생 이루고자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0, 69</p>
<p>丑 37년생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49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른다. 61년생 자신이 직접 나서지 말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좋다. 73년생 희망적이다. 85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89, 32</p>	<p>未 43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다. 55년생 가만만 있으면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67년생 체면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79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5, 11</p>
<p>寅 38년생 명분은 무의미하니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니라. 50년생 후회하지 않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62년생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않는 모습이다. 74년생 침착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85</p>	<p>申 44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하리라. 56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68년생 느낌이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뒤달리 없다. 80년생 처음처럼 대해야만 모면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0, 02</p>
<p>卯 39년생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51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63년생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75년생 예전과는 달리 흐름이 심상치 않다. 행운의 숫자 : 57, 50</p>	<p>酉 45년생 만성적이어서 지각하지 못 할 수도 있다. 57년생 필요하면 찾아가서 청해 보는 것도 관점은 방법이다. 69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81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86, 38</p>
<p>辰 40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느니라. 52년생 주저는 실기로 이어질 것임에 반하다. 64년생 뒤돌아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라. 76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겠다. 행운의 숫자 : 64, 58</p>	<p>戌 46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곧 관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58년생 몇 차례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70년생 앞장서서 보여준다면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82년생 노출 시켜서 좋을 일은 전혀 없다. 행운의 숫자 : 39, 91</p>
<p>巳 41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확실시 대비해야 한다. 53년생 실정에 맞게 대처하고 운용해야 할 때이니라. 65년생 길운으로 향하고는 있으나 그릇이 너무 작다. 77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6, 25</p>	<p>亥 47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다. 59년생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71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이익의 창출이 매우 크다. 83년생 보장 된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행운의 숫자 : 98, 2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